

톱 골퍼들 사막서 '스타워즈'

내일부터 HSBC 챔피언십 … 도널드·우즈·최경주 등 출전



루크 도널드



타이거 우즈



최경주

세계골프 톱 랭커들이 유럽프로골프투어 HSBC 챔피언십(총상금 270만달러)에 출전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집결한다.

26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아부다비 골프장(파72·7600야드)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유럽투어 네번째 대회로, 사막에 세워진 골프장도 장관이지만 무엇보다 화려한 출전 선수들을 자랑한다.

24일 발표된 세계골프랭킹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루크 도널드(잉글랜드)와 2~4위인 타이거 우즈(잉글랜드), 로리 매컬로이(북아일랜드), 마르

틴 카이머(독일)까지 이른바 '매직 넘버 4'가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세계 톱랭커의 출전 뜻지 않게 골프팬들의 시선을 사로 잡는 것은 타이거 우즈(미국)가 이 대회에서 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는 사실이다.

2년 넘게 우승하지 못하던 우즈는 작년 12월 웨朋友们对 월드랠리지 대회에서 마침내 정상에 올라 자신감으로 충만했다.

세계랭킹을 25위까지 끌어올려 대회 주최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우즈는 트위터를 통해 "아부다비 챔피언십 준비는 잘 되고 있고 지난해 프레지던츠컵에

서 파트너였던 스티브 스트리커(미국)가 알려준 퍼팅법을 연습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즈는 2006과 2008년 열린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에서 우승하는 등 중동지역과는 좋은 인연을 맺고 있다.

우즈와 함께 한국골프의 간판 최경주(42·SK텔레콤)도 이번 대회 초청장을 받았다.

최경주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개막전인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공동 5위, 두번째 대회인 소니오픈에서 공동 38위를 차지했다.

2주 전에 열린 소니오픈에서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주간 휴식을 취하고 출전하는 대회인 만큼 컨디션 조절에 만전을 기했다.

지난해 브리티시오픈 우승자 대련 르라크(잉글랜드), 마스터스 챔피언 할 슈위젤(남아공)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려 US오픈 우승자 매릴로이와의 메이저 챔피언들의 대결도 관심을 모운다.

한편 이번 대회는 J골프가 나흘간 생중계한다.

/연합뉴스

한국군단 9명 PGA 출동

양용은 등 내일부터 파마스 인슈어런스 오픈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네 번째 대회인 파마스 인슈어런스오픈(총상금 600만달러)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토리 파인스 골프장에서 열린다.

26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열리는 이 대회는 토리 파인스 골프장 남코스(파72·7560야드)와 북코스(파72·6874야드)에서 나뉘어 진행된다.

이 골프장은 남코스가 '난코스'로 유명하다. PGA 투어를 통틀어 전장이 가장 긴 편에 속하는데 그린도 좁기 때문에

다. 따라서 아무래도 장타력을 갖춘 선수가 유리한 대회다.

지난해 우승자 버바 왈슨(미국)은 투어에서 알아주는 장타자고 토리 파인스에서 열린 대회에서 6차례나 정상에 올랐던 타이거 우즈(미국)도 전성기 때는 비거리가 장기였다.

올해 PGA 투어에 데뷔한 배상문(26·캘리웨이)과 노승열(21·타이틀리스트)도 그런 면에서 이번 대회 상위권 입상을 노릴 것이다. 배상문은 2006년 한국 투어에서 드라이브샷 비거리 1위를 차지했고 지

난해 삼금왕에 올랐던 일본투어에서도 10위를 기록했다.

노승열 역시 지난해 유럽 투어에서 드라이브샷 비거리 5위에 오르며 특유의 장타력을 뽐냈던 선수다.

2009년 PGA챔피언십 우승자 양용은(40·KB금융그룹)은 이 대회로 올해 PGA 투어를 시작하고 지난해 이 대회 1라운드에서 단독 선두에 나섰던 강성훈(25·신한금융그룹)도 올해 대회를 벼르고 있다.

한국(계) 선수로는 양용은, 배상문, 노승열, 강성훈 외에 위창수(40·테일러메이드)와 존존(22), 앤서니 김(27·나이키 골프), 이진명(22·캘리웨이), 리처드 리(25) 등 9명이 출전한다. 샌디에이고 출신 필 미켈슨(미국)은 1993년과 2000년, 2001년에 이어 네 번째 이 대회 정상을 노린다.

/연합뉴스



"비켜... 덩크슛 간다"

피닉스 선수의 마이크 모리스(오른쪽)가 24일 댈러스에서 열린 미국프로농구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경기에서 덩크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클리스터스, 세계 1위 꺾었다

호주오픈 테니스… 워즈니아키 제치고 4강 진출

'디펜딩 챔피언' 킴 클리스터스(14위·벨기에·사진)가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2600만 호주달러)에서 세계 여자랭킹 1위인 캐롤라인 워즈니아키(덴마크)의 4강 진출을 좌절시켰다.

클리스터스는 24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9일째 여자단식 8강전에서 세계 랭킹 1위인 캐롤라인 워즈니아키(덴마크)를 2-0(6-3 7-6(4))으로 완파하고 준결승에 올랐다.

지난해 이 대회 여자단식에서 우승한 클리스터스는 지금까지 호주오픈 한 차례, US 오픈 세 차례(2005·2009·2010년) 등 네 번이나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올랐다.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에 도전한 워즈니아기는 8강전에서 탈락함에 따라 5월 말

시작되는 프랑스오픈을 다시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워즈니아기는 2세트 게임스코어 2-5로 뒤집다가 반격에 성공, 타이브레이크까지 베었으나 3세트로 승부를 넘기지는 못했다. 워즈니아기는 이번 대회가 끝나고 발표될 세계 랭킹에서 1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2010년 10월 세계 1위에 처음 오른 워즈니아기는 지난해 2월 1주일간 클리스터스에 1위를 내주고는 계속해서 1위를 고수했었다.

이에 앞서 열린 다른 8강전에서는 빅토리아 아자렌카(3위·벨라루스)가 아그니스카라드반스카(8위·폴란드)에게 2-1(6(0)-7 6-0 6-2) 역전승을 거두고 4강에 선착했다.

/연합뉴스



사무실 임대

3층 120평 분할 가능

나주시청 정문앞 삼성빌딩

연락처 : 010-9217-7570

합병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3월 12일(수) 19일(화) 대진이엔씨(주)(금) 및 (주)대진이엔씨(금)에서는 각 주주총회 결의로 같은 을율 합병하여 그 권리와무를 승계하고 을율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제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이일로부터 1월15일까지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리며, 이 공문에 수반하여 을율 회사 액면 10,000원의 보통주식 2주를당 1주를당 교부하거나 하였으므로 주식의 분할이 필요로오니 본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본 공고 게재일 이일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리며 이에 공고함.

2012. 1. 19(화) ~ 2012. 1. 25(일)

(감) 대진이엔씨 주식회사

전남 함평군 혜모면 청장리 130-1

대표이사 정 두 호

(을) 주식회사 대진이엔씨

광주 북구 동림동 894-5(2층)

대표이사 김 재 목

보건복지부 국립목포병원장 공개모집

보건복지부* 속속 책임운영 기관인 '국립목포병원'에서 결핵전문진료, 결핵합병증 연구 및 결핵 상담홍보 등을 수행해 나갈 능력과 열정이 풍부한 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직 위

국립목포병원장(계약직 고위공무원)

2. 응시자격 기간

2012. 1. 18(수) ~ 1. 31(화)

3. 문의처

보건복지부 인사과 (02-2023-7058)

* 기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및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를 열람하시거나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광주광역시 광고제작센터

광주광역시 광고제작센터